

동구,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주민설명회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18일 동구문화체육센터에서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다가오는 2026년 7월1일 새롭게 출범하는 제물포구(현 동구·중구 내륙 통합)에 해사법원이 설립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 그동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범구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물포구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인천항의 배후 지역이자, 수도권권의 관문으로서 우수한 접근성을 자랑한다. 특히 해사사건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로펌 및 선사들이 접근성이 좋다는 점에서 제물포구에 법원이 들어설 경우 이용자의 편의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사 법원이 유치된다면 법조계 인력 유입, 컨설팅, 금융, 보험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제물포구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인구 유입 및 상권 활성화로 이어져 제물포구의 원도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동구는 그동안 제물포구 출몰에 발맞춰 해사법원 유치를 지역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삼고 행정의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0월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같은해 11월에는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2만8천여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냈다.

노인·장애인 통합복지 거점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첫삽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0일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 건립 부지에서 '계양구립 종합누리센터'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윤환 계양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주요 인사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종합누리센터 건립의 의미를 공유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했다.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조성'은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아우르는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당 시설은 동양동 394-3번지 일원에 건립되며, 계양구 최초로 노인과 장애인을 아우르는 통합형 복합복지시설로 조성된다. 연면적 4,392㎡,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총사업비 277억 원이 투입된다. 시설 내부에는 노인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종합누리센터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한 공간에 집적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 간 연계 운영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복합복지시설로 조성된다.

'천원주택' 열풍, 삶의 질 개선 도시 전국 1위로 평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에 신혼부부 큰 관심 ... 4.88:1 경쟁률 기록

주거비 부담 완화 넘어 '출산 정책' 효과 입증



인천시의 대표 출생정책 '천원주택'이 올해도 높은 관심 속에 신청 접수수를 마감하며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일 접수를 마감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는 총 700호 공급에 3,419가구가 신청해 최종 경쟁률 4.88대 1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Ⅱ형 200호 모집에 1,735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8.68대 1 ▲전세임대형 든든주택형 500호 모집에 1,684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3.37대 1을 기록하며 지난해(매입임대 7.36:1, 전세임대 3.81:1)

이해 올해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정책 수요가 여전히 견고함을 입증했다. 특히 신혼·신생아Ⅱ형의 높은 경쟁률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인천형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큰 관심과 호응의 반증이다.

낮은 임대료로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지원금 한도가 높아 선택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넓고, 기존 생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천시는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자산 조사 등을 거

쳐 오는 6월 4일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 수준의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에 주거를 지원하는 인천형 정책으로 2025년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매입임대 300호, 전세임대 700호 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임대 방식의 공급을 확대해 입주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천원주택을 비롯한 인천형 출생정책은 지난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킨 이후, 포항시·영천시·제주도 등 여러 지자체로 확산되며 유사 정책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은 단순한 주거 지원이 아니라,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이라며 "입주자 만족도와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남동구, '백세까지 깨끗하게, 허리 건강 관리'

남동구는 최근 인천 자생한방병원 한방재활과 우인 병원을 초청해 주민들 대상으로 '백세까지 깨끗하게 허리 건강 관리'라는 주제의 건강강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년층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 관리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디스크 진단을 위한 MRI 검사 △허리 통증 발생 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시점 △압박 골절 의심 증상 △허리 건강을 위한 바른 자세 유지

방법 등을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됐다. 우인 병원장은 "허리 건강 관리의 첫걸음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라며 "MRI 검사를 통해 디스크 질환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강좌가 허리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노년층의 허리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강좌를 통해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강화군, 인천시와 계곡 불법시설물 합동점검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오는 31일까지 산립 내 계곡 불법 시설물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산립 내 ▲평상·데크 등 무단 점유시설 ▲불법건축물 ▲하천·계곡 내 구조물 설치 ▲무단경작, 상행위 등으로, 현장 중심의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관내 주요 계곡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심하린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학교 현장 찾아 응원 메시지

기상청의 폭염 대응체계 강화에 발맞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 대책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월 19일 인천청라중학교와 인천청림중학교 학부모모회에 참석해 교직원을 격려하고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새 학년을 맞아 학교 교

육과정 운영을 공유하고, 학부모와 교육청이 함께 아이들의 성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교육감은 "학부모총회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학교와 가정의 마음을

모으는 자리"라며 "교육은 학교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 교육감은 "인공지능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생명의 시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힘"이라며 "AI가 빠르게 발전할수록 비판적 문해력과 최종 판단자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학생 시기는 흔히 위기의 시기로 불리지만, 이를 기회의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고, 언제나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심하린 기자

중구, 호텔객실관리사 13명 배출

중구(구청장 김정환)는 지역 서비스 산업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호텔객실관리사 양성 교육 과정'의 2026년도 제1기 수료생 총 13명을 배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상생 일자리 공모 사업의 일환인 이번 교육은 인천공항공을 보유한 영종국제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호텔·관광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한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

특히, 경력 단절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여성 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구는 지난 2024년부터 그랜드하얏트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 네스트호텔 등 지역을 대표하는 호텔들과 협력해 교육·취업 연계형 인력 양성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9기 과정에서 14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중 110명이 취업에 성공해 약 74%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제1기 교육은 3월 5일부터 19일까지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에서 진행됐으며, 총 60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생들은 실제 호텔 현장에서의 생생한 실습 실습을 거치며, 즉시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추게 됐다.

이와 관련해 '2026년도 제1기 호텔관리사 양성 교육 과정 수료식'이 지난 19일 오후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 리버룸에서 김정환 중구청장, 리조트 관계자, 수료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구는 올해 4월 진행될 2026년도 제2기 '호텔객실관리사 양성 과정'의 참여자를 지난 23일부터 모집 중이다.

남양주시 왕속 도시침단신입단지 투지유치설명회

2026. 03. 25. WED. PM 2:00 엘타워 5F 오르체홀 서울시 서초구

- | 주요 프로그램 |
- 투자환경 및 비전 제시
- 분양정보 및 투자 인센티브 안내
- 투자사례 발표 (우리은행/카카오)



02.23.MON.
03.20.FRI.
사전접수

100만 메가시티 남양주에서 기회를 잡으세요
남다른 선택 양질의 미래 주목받는 투자도시, 남양주

- 신한금융그룹 AI 인퍼니티 센터
- 우리금융그룹 디지털 유니버스
- kakao 디지털 허브

